

재창업의 성공 요인 : 지식, 인지심리, 감정

배태준*

한양대학교 창업융합학과 교수

최윤형**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석사과정

국 문 요 약

계속 높아지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에도 불구하고 2017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국가로 전체 7위를 기록했다. 실패 후 신용 불량으로 인한 재기 불가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팽배해 창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아직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패에 대해 관용적인 문화와 실패를 통한 학습 독려,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지원 활성화 정책은 한국을 진정한 창업국가로 변모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패를 경험한 창업가 본인 자신이 새롭게 재기에 임하는 마음 가짐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의 목적 역시 재창업자가 다시 창업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찾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기에 성공한 4명의 사업가와 재도전을 했으나 여전히 성과를 못 내고 있는 5명의 사업가를 인터뷰하여 재도전의 성공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재기 창업가가 재도전 성공을 위해 가져야 할 자세와 역량을 1) 지식(knowledge), 2) 인지(cognition), 3) 감정(emotion) 이상 3가지 관점에서 기존의 연구가 다루지 못한 접근법을 제안한다. 먼저, 지식 관점에서 보면 기존 사업과의 동질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진출하는 영역에 대한 준비성이 재도전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인지적 관점에서는 과거 실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자기 실택으로의 귀인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앞으로 영위할 사업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지적과 충고에 대한 수용 역량(coachability)이 성공과 실패를 나눴다. 마지막으로 감정 관점에서 선행연구는 실패로부터 슬픔을 빨리 극복하는 사람이 학습과정도 빨리 이뤄지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슬픔의 극복은 재기 후 성과와는 관련이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재기 전 생계유지가 가능한 상태 여부가 성공의 선행조건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핵심어: 재창업, 준비성(preparedness), 코처빌리티(coachability), 실패를 통한 학습(learning from failure), 최저생계(subsistence level)

1. 서론

창업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초일류 창업국가로의 국가 경제 발전 방향은 더더진 경제성장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Shane & Venkataraman, 2000; 김홍, 2012; 이종선·김나미, 2019).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2019)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신설법인의 수가 2011년 약 6만 5000개에서 2018년 10만 2000개를 돌파하였다. 또한 혁신 성장을 위한 창업국가로의 기치를 내건 정부의 수많은 창업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2015년 벤처인증기업 수가 3만 개를 돌파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폐업 기업이 77만 개를 넘고 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3%로 OECD 주요 17

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질적 성장은 미흡한 실정이다(김예지·이민화, 2017). 이처럼 창업은 실제로 실패 확률이 매우 높으며(이종건 외, 2014) 게다가 실패에 대한 한국 사회의 냉담한 시선은 여전히 창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실제로 창업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32.6%가 창업의향이 없는 이유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은 재기에 대한 어려움을 꼽았다(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17). 심지어 2017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국가로 전체 7위를 기록했다. 이는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실패 후 재기 불가능에서 오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가들이 창업 실패 이후에도

* 주저자 및 교신저자, tjbae@hanyang.ac.kr

** 공동저자, bigchoi@hanyang.ac.kr

다시 창업을 시도하곤 한다(Flores & Blackburn, 2006). 실제로 많은 창업 및 경영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재창업을 반복하는 기업가의 특징과 실패를 통한 학습 과정, 재창업 성공 요인 등 창업실패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왔다(Minniti & Bygrave, 2001; Shepherd, 2003; Plehn-Dujowich, 2010; Cope, 2011; Eggers & Song, 2015; Hsu et al., 2017; Simmons et al., 2019).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가의 인지심리와 감정 관점에서 재창업 의도와 성과를 다루어왔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제도와 정책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형호·윤현덕, 2015; 김예지·이민화, 2017). 그러나 실패기업인의 사업 행위와 관련된 기업가의 특징에 관해서는 최근에서야 연구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재창업에 관한 효과적인 지원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재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을 새롭게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재기에 성공한 4명의 사업가와 재도전을 했으나 여전히 성과를 못 내고 있는 5명의 사업가를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지식, 인지심리, 감정 관점에서 재도전에 성공한 사업가와 그렇지 못한 사업가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재도전 성공요인을 탐색하여 새로운 설명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배경 및 가설

2.1. 지식: 창업가의 준비역량

최고경영층 이론(upper echelons theory)에 따르면 최고경영진의 특성 및 다양성이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Hambrick & Mason, 1984). 따라서 벤처기업은 창업가의 이전 경험과 성향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정민 외(2013)는 창업 준비를 업종 선정, 기술확보, 인력확보, 사업장 위치선정, 자본금 확보에 대한 준비정도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 창업가의 철저한 창업 준비가 창업시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창업 경험은 기업의 성과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Stuart & Abetti, 1987) 창업 전 취업 혹은 창업을 했던 업종과 현 업종과의 동질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연구가 있었다(Bates, 1990).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한 산업에서의 창업경험은 산업의 전문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를 위한 창업자의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연쇄창업가의 재창업기업은 새로운 산업

으로 재창업보다 동일한 산업에서의 재창업이 매출성과에 긍정적임을 실증적으로 밝힌 바 있다(Kirschenhofer & Lechner, 2012). 반면 전문성을 가진 기존의 산업에서 재창업을 할 시 능력과 아이디어를 과신하는 경향이 생길 여지가 있어(Bernardo & Welch, 2001) 여전히 이전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Eggers & Song, 2015). Metzger(2007)은 이전의 실패경험이 재창업기업의 실패확률을 높인다고 했다.

이처럼 동종 산업에서의 재창업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창업가가 창업에 임하는 태도와 준비자세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Pollack et al.(2012)은 북미에서 방영된 벤처투자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벤처기업 CEO 113명의 피칭을 연구한 결과, 창업의 준비성(entrepreneurial preparedness)과 투자받은 펀딩 액수의 관계가 인지된 합리성에 의해 긍정적으로 매개됨을 밝혔다. 오재우 외(2015)는 창업의 준비성 중 창업수혜금액으로 측정된 자금 준비성이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따라서 재창업 시에는 단순히 산업의 동질성 여부보다는 동일한 산업이든 새로운 산업이든 간에 창업가의 여러 노력과 준비 정도에 따라 재창업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명제1 : 재창업 시 기존 산업과의 동질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진출하는 영역에 대한 준비성이 재도전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재창업 시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2.2. 인지: 창업가의 코쳐빌리티

McGrath(1999)와 Shepherd(2003)는 창업 실패로부터 기업가가 실패의 원인을 추론하여 기존의 지식을 수정하는 등의 학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실패를 했을 때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게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패를 이해하고 극복한다고 하였다(Yamakawa et al., 2013). 특히 인지심리학 관점에서 연구자들은 창업 실패 연구에서 실패 후 학습(learning from failure)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귀인(attribution)을 이야기한다(Yamakawa et al., 2013; Ucbasaran et al., 2013; 이종선·김나미, 2019). Heider(1958)는 귀인이론을 주장하면서 특정 행동에 대한 원인을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내

부 요인은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자신의 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반면, 외부 요인은 환경적인 힘에 의한 외적 요인으로 행동의 원인과 결과가 발생하므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Rotter, 1966).

따라서 창업 실패에 대해 자기 실책으로의 귀인은 창업자가 자신이 실수했던 부분을 반성하며 새롭게 학습함으로써 기존의 지식을 수정하여 재창업 시 성과가 좋으나 Yamakawa et al.(2013)는 이전 실패의 규모가 컸다면 감소된 자기 효능감으로 인해 실패로부터 일련의 학습과정이 발생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이종선·김나미(2019)는 실패 경험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패에 대한 귀인(Attribution)을 내부 요인에서 파악하는 사람일수록 사업 실패를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기 때문에 실패했던 산업 내에서 다시 한 번 도전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는 창업가가 재창업 전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다. 위와는 반대로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 두는 경우도 있다. 기업가는 실패를 경험한 뒤 겪는 트라우마나 슬픔 등의 부정적 감정들을 극복하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도 한다(Ucabasaran et al., 2010). 실제로 산업의 급격한 환경 변화나 진출 타이밍을 못 맞춰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실패에 대한 귀인을 내부든 외부든 제대로 분석하여 기존의 지식을 수정·변형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성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재창업자에게 필요한 태도는 바로 타인의 조언을 수용하는 코치빌리티(coachability)이다. 코치빌리티는 체육학(athletics) 분야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선수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려는 노력과 코치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운동성적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Giacobbi, 2000; Favor, 2011). 실제로 투자자는 창업자의 경청하는 자세나 피드백을 수용하는 태도를 중요시 여긴다(Combs, 2012). Ciuchta et al.(2018)은 투자자가 실제로 조언에 경청하는 자세를 지닌 창업자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창업자는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창업 경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아이디어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Bernardo & Welch, 2001). 따라서 투자자와 같은 주변의 조언을 가볍게 듣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실패에 대한 자기 실책으로의 귀인이 만들어내는 철저한 학습과정은 오히려 타인의 충고를 무시하게 만들어 재창업 성공의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

서 재창업 시에는 어떤 조언이라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리로 다음의 명제를 제시한다.

명제2 : 재창업 시 과거 실패에 대해 자기 실책으로의 귀인보다는 앞으로 영위할 사업에 대한 타인의 지적과 충고에 대한 수용 역량이 재도전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실패 원인을 찾기 보다는 앞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타인의 조언에 집중해야 한다.

2.3. 감정: 실패 극복과 최저 생계유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자명하다(김수진 외, 2016). 이는 재창업에서도 역시 유의하다. Ucabasaran et al.(2009)에 따르면, 창업가가 실패할 경우 또 다른 실패를 할 가능성을 우려해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낮아져 성과가 미비하다. 실패 경험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만들어 내고 사회의 부정적 시선과 실패자라는 오명과 낙인이 찍히기도 한다(Shepherd & Haynie, 2011; Simmons et al., 2014).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실패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슬픔, 패배감 등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Shepherd, 2003; Cope, 2011).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고 긍정적 감정을 이끌어 내어 다시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Hayward et al.(2010)과 Jenkins et al.(2014)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꼽는다. 실제로 기업가의 회복탄력성이 우울감과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추가적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요인임이 밝혀졌다(Bullough et al., 2014; Ayala & Manzano, 2014; 이종선·김나미, 2019).

그러나 Sinclair & Wallston(2003)이 개발한 회복탄력성 척도(1)는 기업가의 전반적인 행태만을 물어볼 뿐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설명은 없다. Cope(2011)는 실패를 통한 학습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실패 후 일정 시간이 지나서 감정을 추스르고 나아가 실패에 대한 정확한 반추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선행조건은 생계유지 가능 여부이다. 생계가 보장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거나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없어 생계에 부담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재기를 위해 다시 일어날 여력이 존재할 것이다.

1) 1) 나는 인생에서 잃은 것을 대체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2) 나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여 긍정적 방향으로 성장할 것임을 믿는다, 3) 나는 어려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창의적 방법을 탐색한다, 4)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나는 내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명제3 : 재창업 시 과거 실패에 대해 슬픔 극복 여부보다 재기 전 최소한의 생계유지 가능 여부가 재도전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생계에 대한 걱정이 적어야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의지와 도전의식이 생길 수 있다.

N company	X	매우 약함	매우 약함	매우 약함
B company	X	강함	매우 약함	강함
C company	X	약함	약함	약함

<표 2> 각 관점별 세부 내용

관점	성공 여부	내용
지식: 준비성	성공	1. 매우 강함 (새로운 산업 진출) 실패 후 공장 관리자로 5년 근무 후 재창업 정부 지원자금으로 시제품 준비하며 아이템과 관련된 전공으로 공학 학위 취득 후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을 하고 부족한 경영지식과 네트워크를 보완하기 위해 MBA 취득 2. 매우 강함 (기존 산업 진출) 동종 산업에서 오랜 직장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 시장의 한계를 느끼고 해외 시장 조사를 하고 OEM 기업과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 생산했으며 거의 대부분이 준비된 상태에서 딱 맞는 적절한 정부자금을 신청해 해결함.
	실패	1. 매우 약함 (새로운 산업 진출) 이전에 관심만 있던 산업으로 무작정 진입하여 산업 사이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시작한 것을 후회함. 왜냐하면 이전 산업과 생태계 자체가 편이하게 달라 적응하는데 시간, 노력 등 많은 비용이 지출됨. 2. 약함 (기존 산업 진출) 투자에 대한 대충의 계획만 세워놓고 정부 지원 등 외부 자금 조달에 대해 이뤄놓은 일이 없음. 필요할 때마다 약성 사채를 이용하여 정부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로 단계별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을 느낌.
인지 심리: 코쳐빌리티	성공	매우 강함 (내부 귀인) 이전에 잘못된 사업이 공공기관에서 아이템을 बे끼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비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타인의 조언과 검증이 너무나 없을지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임. 타인 검증을 통해 내 약점을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었으며 내 아이템이 우월하다는 사고는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매우 강함 (내외부 귀인) 과거 생산량을 과도하게 늘리다가 품질 저하가 생겼으며 산업 자체가 사양 산업이었고 동료의 배신도 생기는 등 경쟁력 상실도 발생함. 그러나 자존심만 내세우는 것은 소용없고 타인의 조언이 기본 나쁠 수 있으나 그 속에서 엄청난 도움이 됨. 그 이후에는 말도 안 되는 조언도 귀담아 들으려고 함.
	실패	1. 매우 약함 (내외부 귀인) 경험 미숙 및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을 이어나가지 못했으며 거래처 횡포 또한 거래처 분산을 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으로 여김. 성격이 급한 편이라 지원 자금을 알아보지 못하고 약성 사채를 그때그때 이용한 것을 후회함. 타인의 조언의 좋은 나쁜 큰 심리적 동요는 없으나 다른 업종의 전문가가 조언할 때는 듣지 않는 편임. 2. 매우 약함 (내부 귀인)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사람을 너무 믿어 피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 편이나 아예 안 듣는 것은 아님. 그러나 타인의 조언이 대부분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함.
감정: 최저생계유지	성공	강함 부양가족이 부모님 1명뿐이라 먹고 사는 최소 생계유지에 대한 걱정은 없었음. 생계 걱정을 안 할 수 있으니 다시 목표가 생기고 심리적 안정도 되침. 매우 강함 폐업 후 생계유지와 동시에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단순 노동을 하며 의지를 다시 세움. 사업 활동 자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생계를 유지할 돈이나 상황이 마련되어야 그 이후의 창업을 통한 자아실현, 명예 등의 목표가 생긴다고 생각함.
	실패	1. 매우 약함 사업으로 망했기 때문에 사업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나를 통해 사람들이 돈을 버는 등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창업을 시작함. 그러나 잦은 약성 사채 이용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으며 생계를 유지하느라 다른 목표를 못 세우고 있음.

III. 연구방법 및 결과

3.1. 연구대상

연구 표본은 질적 사례연구를 위해 과거 창업 경험이 있으며 현재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 CEO 9명을 대상으로 면접(interview)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2018년 3월 6일부터 23일까지 각 한 차례씩 개별면접(person-to-person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중 4개 기업(D, S(a), S(b), M 기업)은 재기에 성공했으며 5개 기업(M, T, E, B, C기업)은 재도전에도 여전히 성과를 못 내는 기업이다. 본 연구의 표본 수집은 재도전을 이어나가는 사업가를 찾기가 어려울뿐더러 특히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실패기업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확률적 표집법 중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Goodman, 1961; Biernacki & Waldorf, 1981)) 기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재도전협회를 통해 재기에 성공한 기업을 시작으로 소개를 받아 표본을 수집했다.

3.2. 연구결과

재기에 성공한 4개 기업과 아직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5개 재창업 기업을 지식, 인지심리, 감정 관점별로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각 기업의 상태를 매우 강함, 강함, 보통, 약함, 매우 약함 총 5단계로 분류했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나눈 기준의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1> 9개 기업의 성공여부 및 성공요인

기업	성공여부	지식: 준비성	인지심리: 코쳐빌리티	감정: 최저생계유지
D company	O	매우 강함	매우 강함	매우 강함
S(a) company	O	매우 강함	매우 강함	매우 강함
S(b) company	O	강함	매우 강함	강함
M company	O	매우 강함	매우 강함	매우 강함
T company	X	약함	보통	약함
E company	X	매우 약함	보통	매우 약함

	<p>2. 약함 기술에 특화된 아이템이라 시간이 오래 걸려 매출이 나오기 까지 자금이 없어 생활고를 겪었음.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 등 투잡을 했었으나 지금은 못하고 있음.</p>
--	---

참고문헌

김수진·한정화·이상명(2016). 예비창업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3), 49-61.

김예지·이민희(2017). 제도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2(5), 101-128.

김형호·윤현덕(2015).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지원 제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벤처창업연구*, 10(6), 235-252.

김홍(2012). 대학생의 창업요인과 창업의지와의 관계 연구. *벤처창업연구*, 7(1), 263-271.

남정민·전병준·박정우(2013). 창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준비단계 핵심요인 연구: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창업 생존에 대한 중단분석. *인적자원관리연구*, 20(5), 27-43.

배영임(2014). 재창업 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9(3), 13-22.

오재우·이동형·강진규(2015). 창업준비성이 창업초기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준비기간의 조절효과 중심. *벤처창업연구*, 10(4), 67-80.

이종건·김현철·안태항(2014). 자기효능감과 기업성과: 창업지향성과 창업경험의 역할. *경영학연구*, 43(2), 561-586.

이종선·김나미(2019). 창업가의 실패 귀인 지향성이 재창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적 자기 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3), 13-26.

중소벤처기업부(2019). *2018년 신설법인, 10년 연속 증가하여 10만 개 돌파*, (2019.08.27.) from <http://ext.smba.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10182>.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2018).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7). *2017년 창업인식 실태조사*.

Ayala, J. C., & Manzano, G. (2014). The resilience of the entrepreneur. Influence on the success of the busines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42, 126-135.

Bates, T. (1990). Entrepreneur human capital inputs and small business longevity. *MIT Press*, 72(4), 551-59

Bernardo, A. E., & Welch, I. (2001). On the evolution of overconfidence and entrepreneurs.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rategy*, 10(3), 301-330.

Biernacki, P., & Waldorf, D. (1981). Snowball sampling: Problems and techniques of chain referral sampling.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0(2), 141-163.

Bullough, A., Renko, M., & Myatt, T. (2014). Danger zone entrepreneurs: The importance of resilience and self-efficacy for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8(3), 473-499.

Ciuchta, M. P., Letwin, C., Stevenson, R., McMahon, S., & Huvaj, M. N. (2018). Betting on the coachable

entrepreneur: signaling and social exchange in entrepreneurial pitch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42(6), 860-885.

Combs, V. (2012). *VCs: Entrepreneurs must have strong IP and be coachable [Electronic Version]*. MedCity News.

Cope, J. (2011). Entrepreneurial learning from failure: An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6(6), 604-623.

Delmar, F., & Shane, S. (2006). Does experience matter? The effect of founding team experience on the survival and sales of newly founded ventures. *Strategic Organization*, 4(3), 215-247.

Eggers, J. P., & Song, L. (2015). Dealing with failure: Serial entrepreneurs and the costs of changing industries between ventur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8(6), 1785-1803.

Favor, J. K.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coachability in NCAA divisions I and II female softball athle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Science & Coaching*, 6(2), 301-314.

Flores-Romero, M. G., & Blackburn, R. (2006, January). *Is Entrepreneurship more about sticking with a firm, or about running several of them? Evidence from Novice and Serial Entrepreneurs*. In Workshop on firm exit and serial entrepreneurship, Max-Planck-Institute, Jena (pp. 13-14).

Giacobbi, P. (2000). *The athletic coachability scale: Construct conceptualization and psychometric analyses (Doctoral dissertation)*.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Goodman, L. A. (1961). Snowball sampling. *The annals of mathematical statistics*, 148-170.

Heider, F.(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Hambrick, D. C., & Mason, P. A. (1984). Upper echelons: The organization as a reflection of its top manager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9(2), 193-206.

Hayward, M. L., Forster, W. R., Sarasvathy, S. D., & Fredrickson, B. L. (2010). Beyond hubris: How highly confident entrepreneurs rebound to venture agai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5(6), 569-578.

Hsu, D. K., Wiklund, J., & Cotton, R. D. (2017). Success, failure, and entrepreneurial reentry: An experimental assessment of the veracity of self-efficacy and prospect theor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41(1), 19-47.

Jenkins, A., Wiklund, J., & Brundin, E.(2014). Individual responses to firm failure: Appraisals, grief, and the influence of prior failure experie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9(1), 17-33.

Kirschenhofer, F., & Lechner, C. (2012). Performance drivers of ser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ial and team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8(3), 305-329.
- McGrath, R. G. (1999). Falling forward: Real options reasoning and entrepreneurial fail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1), 13-30.
- Minniti, M., & Bygrave, W. (2001). A dynamic model of entrepreneurial learning.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5(3), 5-16.
- OECD(2017), *Small, Medium, Strong. Trends in SME Performance and Business Conditions*. OECD Publishing.
- Pollack, J. M., Rutherford, M. W., & Nagy, B. G. (2012). Preparedness and cognitive legitimacy as antecedents of new venture funding in televised business pitch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6(5), 915-939.
- Plehn-Dujowich, J. (2010). A theory of serial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35(4), 377-398.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1), 1.
- Shane, S., & Venkataraman, S. (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 Shepherd, D. A. (2003). Learning from business failure: Propositions of grief recovery for the self-employed.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8(2), 318-328.
- Shepherd, D. A., & Haynie, J. M. (2011). Venture failure, stigma, and impression management: A self-verification, self-determination view.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5(2), 178-197.
- Simmons, S. A., Wiklund, J., & Levie, J. (2014). Stigma and business failure: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 career choices. *Small Business Economics*, 42(3), 485-505.
- Simmons, S. A., Wiklund, J., Levie, J., Bradley, S. W., & Sunny, S. A. (2019). Gender gaps and reentry into entrepreneurial ecosystems after business failure. *Small Business Economics*, 53(2), 517-531.
- Sinclair, V. G., & Wallston, K. A. (2004). Th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Brief Resilient Coping Scale. *Assessment*, 11(1), 94-101.
- Stuart, R., & Abetti, P. A. (1987). Start-up ventures: Towards the prediction of initial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215-230.
- Ucbasaran, D., Shepherd, D. A., Lockett, A., & Lyon, S. J. (2013). Life after business failure: The process and consequences of business failure for entrepreneurs. *Journal of Management*, 39(1), 163-202.
- Ucbasaran, D., Westhead, P., & Wright, M. (2009). The extent and nature of opportunity identification by experienced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4(2), 99-115.
- Ucbasaran, D., Westhead, P., Wright, M., & Flores, M. (2010). The nature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business failure and comparative optimism.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5(6), 541-555.
- Westhead, P., Ucbasaran, D., & Wright, M. (2003). Differences between private firms owned by novice, serial and portfolio entrepreneurs: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Regional studies*, 37(2), 187-200.
- Yamakawa, Y., Peng, M. W., & Deeds, D. L. (2015). Rising from the ashes: Cognitive determinants of venture growth after entrepreneurial fail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9(2), 209-236.